

수요가정에배순서

1.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2. 찬 송 가 304장 다같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1.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러 그 아들 보내사
 화목 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 하셨네
 2.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의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3. 하늘은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 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 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후렴】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3. 기 도 가족 중에서 기도자
4. 말 씀 요한일서 4장 10절 인도자
5. 찬 송 가 563장 다같이
 (예수 사랑하심을)
 1.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2.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3.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4. 세상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 가는날 천국가게 하소서
 【후렴】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6. 합심기도
 1. 코로나 19가 교회내에 확산되지 않고 안정되도록
 2. 백신이 빠른 시일 내에 개발되어 코로나 19가 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3. 암과 질병으로 투병중인 교우들에게 완전한 치료와 회복을 주시도록
 4. 담임목사님 영육간의 강건주시고 항상 성령충만함 주시도록
7. 주기도문 다같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사람은 누구나 관계 안에서 사랑을 받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받기 위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오히려 만족하기보다 많은 상처와 실망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인간관계 안에서의 사랑은 불완전하고 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은 사랑할만한 조건이 있어야 사랑을 주고, 사랑할만한 이유가 없을 때는 사랑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불완전한 인간의 사랑과는 다른 완전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한지 2가지 이유를 함께 나누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할까요?

1. 하나님께서는 사랑받을 자격 없는 우리를 먼저 사랑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반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죄인 된 우리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도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죄인 된 우리는 하나님에게 사랑받을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완전한 이유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먼저 사랑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출발점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1서 4:8).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흔들리고 넘어져서 "하나님은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거야"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결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능가하는 죄는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더 의로운 행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지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부터 완전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할까요?

2.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을 통해서 나타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말로만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는 원래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심판을 대신 받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회복시켜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고, 또한 완전한 구원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흔들리고 연약한 우리로 인한 사랑이 아니라, 신실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얻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인간관계에 실패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